

# 韓國近代文學연구에 쏟는 집념 「傳記的方法」으로 작가연구

연구서·평론집 등 37권의 著書 낸 金允植 교수

『책을 읽고 쓰는 것이 바로 나의 임무입니다. T.S. 엘리엇의 말처럼 모든 것이 살아있는 체계가 되어야 한다면, 근대문학에 대한 연구와 더불어 최근의 문학에 대한 이해가 병행되어야 하겠죠』

미개척분야였던 「한국근대비평사」의 발을 일구는 한편, 현대 창작문학의 비평에도 폭넓은 관심을 기울여온 金允植교수(서울대 국문과)는 多作 아닌 多著의 辯을 이렇게 말한다. 그가 23권의 연구서, 4권의 평론집, 5권의 편저, 3권의 번역서, 그리고 2권의 문학관계 사전을 낸 드물게 보는 정력적인 저술가의 한 사람이라는 사실을 알만한 사람은 다 안다. (별표 참조)

## 高校때부터 習作, 뒤에 방향전환

다른 대부분의 문학연구가·평론가가 그렇듯 그도 창작에서부터 문학과 관련을 맺었다. 馬山고교 재학 때부터 시작된 습작은 1955년 서울師大에 입학한 뒤에도 문학서클활동으로 이어졌다. 그 당시는 金鵬九교수 등이 소개했던 사르트르나 카뮈의 실존주의문학이 젊은이들 사이에 유행처럼 번졌다. 金교수는 그때 자신도 이런 경향의 습작을 했던 기억을 떠올린다.

『문학이 예술의 일종이라면 학교에서는 그 창작을 가르칠 수도 배울 수도 없다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대학에서 할 수 있는 것은 문학연구일 뿐이죠. 그러나 문학연구도 문학의 창조적 성격 때문에 엄밀히 말한다면 학문이 되기 어렵다고 할 수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문학연구를 ‘학문 비슷하게’ 하려는 두가지의 노력이 있었다고 金교수는 말한다. 그 하나는 러시아 형식주의에서 출발하여 체코를 거쳐 미국의 뉴 크리티시즘(신비평), 프랑스의 구조주의로 이어지는, 작품 내부의 미학적 장치를 밝히려는 문학연구 방법이고, 또다른 하나는 마르크스를 거쳐 루카치와 골드만으로 연결되는, 문학을 사회와의 관련 속에서 파악하려는 ‘문학사회학’적 연구방법이다. 金교수 자신은 현재 후자에 관심을 갖고 있다고 밝힌다. 그는 자신에게 가장 강한 영향을 준 사람으로 헝가리의 마르

크스주의 美學者 루카치(Georg Lukács)와 프랑스의 문학사회학자 지라르(René Girard)를 꼽는다.

『별이 빛나는 창공을 보고, 갈 수가 있고 또 가야만 하는 길의 지도를 읽을 수 있던 시대는 얼마나 행복했던가?』

루카치의 「소설의 이론(Die Theorie des Romans)」은 이렇게 시작한다. 金교수는 그 문장이 주는 신선한 충격을 아직도 잊지 못한다고 한다. 또 지라르의 「욕망의 간접화」현상은 자본주의의 허위의식을 밝히는 도구로 매우 유용하다는 관점을 그는 갖고 있다.

그들에 대한 관심 때문에 그는 루카치의 「소설의 이론」과 지라르의 「낭만적 허위와 소설적 진실(Mensonge romantique et Vérité romanesque)」을 번역하였는데, 루카치의 번역 원고는 끝내 책상서랍에 묻혀 있게 되었고 지라르는 1977년 三英社에서 「소설의 이론」이라는 이름의 책으로 출간되어 빛을 보았다.

## 새로운 方法論의 모색

그러나 金교수 자신은 한국근대문학 연구에 손을 든 후 지금까지 몇 차례 방법론상의 변모를 겪었다. 그의 첫 연구서이며 그가 가장 애착을 갖는 저서인 「韓國近代文藝批評史研究」(1973년 한일문고에서 첫 발행)에서 그가 보인 방법론은 ‘實證主義’. 그는 이 방법론이 세계의 문학연구사에서 가장 처음으로 나타났다는 점에서 『가장 낡은 방법』이라고 말한다. 「한국근대문예비평사연구」는 신문학 초기부터 해방전까지 이론비평과 실천비평 등 비평에 관한 자료를 모아 사적으로 정리한 글. 그의 말에 의하면, 그는 이 책에서 모든 가능한 자료를 모아 책에 배열하는 ‘실증주의’적 방법론을 택했다는 것.

이 책의 방법론상 허점을 보완하려 한 것이 「한국근대문학사상사」(84년 한길사刊)이다. 이 책은 「한국근대문예비평사연구」에 비해 다음 두가지 점에서 특징적이라고 한다. 첫째는 당시의 역사적 맥락 속에서 비평사를 이해하려 했다는 점. 둘째는 이 책의 주된 내용을 이루는 카프(KAPF·조선프로레타리아예술가



金允植교수는 「近代論」 자료수집차 곧 일본으로 떠난다.

## 최근 그는 방법론상의 새로운

모색을 꾀하고 있다.

## 작가의 傳記的 자료를 토대로

작품을 해명하려는 「傳記的方法」에

의해 「金東仁研究」「李箱研究」등을

출간할 예정.

동맹)를 일본 NAPF와 러시아 RAPF와의 관련 속에서 파악하려 했다는 점.

『문예비평사연구』에서의 실증주의적 태도와 「문학사상사」에서의 비주체적인 시각이 최근 젊은 연구가들에 의해 비판을 받지만, 앞의 책은 우리나라 최초의 본격 비평사라는 점과 방대한 자료를 제시했다는 점에서, 뒤의 책은 국제적인 관련 속에서 KAPF를 살펴보았다는 점에서 의의를 찾을 수 있다」고 스스로 평가한다. 그러나 젊은 연구가들의 그러한 지적은 자신으로서서는 어쩔 수 없는 한계였음을 인정하고 그 극복은 젊은이들이 해야 할 몫이라고 해명한다.

그 이후 그는 방법론상의 새로운 모색을 꾀하게 된다. 최근 그는 「傳記的方法」에 관심을 갖는다. 이것은 작가의 시대적 배경, 성장환경, 교육과정, 교우관계 등이 작품에 영향을

준다는 전제하에 작가의 傳記的 자료를 토대로 작품을 해명하려는 문학연구방법 중의 하나. 이 방법은 그가 최초로 관심을 가졌던 실증주의와 맥이 닿는 한편, 문학사회학과도 일정한 관련을 맺는 것이라 할 수 있다. 그는 이러한 방법으로 「李光洙와 그의 시대(전3권)」(86년 한길사刊), 「廉想涉研究」(87년 서울대출판부刊), 「安壽吉研究」(86년 정음사刊) 등을 내었으며, 이어 「金東仁研究」「李箱研究」를 출간할 예정이다. 앞으로 이러한 연구의 연속으로 대표적인 좌파 이론가에 대한 연구서가 될 「林和 연구」도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힌다.

## 「近代」의 해명에 초점 맞춰

이들은 모두 일본과 관련을 맺고 있는데, 그것은 바로 근대와 관련을 맺고 있음을 뜻한다고 金교수는 강조한다. 『근대가 자본주의의 전개과정이고 우리나라의 자본주의는 일본을 통해 본격화됨을 인정한다면, 일본과의 관련은 바로 근대와 관련이 아니겠느냐』고 반문한다.

『근대문학을 연구하는 사람이라면 ‘근대’란 무엇인가에 대하여 관심을 가져야 합니다. 근대란 바로 자본주의와 밀접한 관계를 갖는데, 나는 대학원생들에게 문학을 공부하기 전에 자본주의를 먼저 공부하라고 말해요. 자본주의가 뭔지 알아야 근대문학의 개념도 알 수 있

## 가장 성공적인 교과서

## 白紙책 이미 18세기의 아이디어

오늘날 흔히 볼 수 있는 「Nothing Book」(空冊), 즉 백지만으로 제본된 책의 아이디어는 오래된 것이다. 「화학원리」라는 저서를 남기기도 한 화란의 의사 헤르만 보어하브는 1738년에 죽으면서 봉합된 책 한권을 남겼다. 제목이 「의학에서 오직 한가지의 가장 심오한 방법」이라는 이 책은 후에 2만 달러에 경매되어, 새 소유주가 봉합을 뜯으니 타이틀 페이지에만 저자 자필의 글이 있을 뿐 100여 페이지 모두가 공백이었다고. 그 한마디는 「당신의 머리를 차게 하고, 발을 따듯이 하라. 그렇게 하면 당신은 건강히 지낼 수 있고, 의사는 할 일이 없게 될 것이다」였다.

## 교향의 축복 받은 「벤허」

류 윌라스 장군이 쓴 베스트셀러 「벤허」는 1880년에 발행되자 교향에 의해 축복이 내려진 사상 최초의 소설이 되었다.

## 가장 따분한 책

프랑스의 수학자 장 쿨로드와 마르탱 보이어가 1973년에 펴낸 한 책은 원주율을 소수점 이하 100만 단위까지 계산해낸 책으로, 숫자로만 400여 페이지에 이른다. 세계에서 가장 따분한 책의 하나가 아닐지?

## 통 속의 보물

아리스토텔레스가 쓴 50여권의 책 중 대부분은 로마인의 아시아 침공시 우연히 통속에서 발견되어, 로마 장군 술라에게 전해져 로마에서 복사되었다.

## 역사상 성공적인 교과서

역사상 가장 성공적인 교과서는 유클리드의 책. 그가 기원전 300년에 저술한 「Elements」는 인쇄술이 보급된 이래 1000판을 거듭해, 「나는 유클리드를 공부했다」는 말은 곧 「기하학을 공부했다」는 말이 되었을 정도.

## 「헉클베리 핀」의 명성

어네스트 헤밍웨이는 미국 소설 중에서 마크 트웨인의 「헉클베리 핀」을 가장 훌륭한 작품으로 꼽았는데, 「모든 미국문학은 이 책으로부터 영감을 받으며 그 이전이나 그 이후로도 더 좋은 작품은 없었다」고 격찬.

## 「프리랜스」의 유래

「프리랜스 라이터」라는 말은 영국의 작가 윌터 스코트경이 「아무에게도 채용되지 않은, 고용될 수 있는 군인들을 「프리랜스들」이라고 표현한데서 유래한다.

## 백과사전의 실수

세계 최초로 가장 많은 정보를 담은 백과사전 「뉴른베르크 크로니클」은 1493년말 뉴른베르크의 의사 하르트만 세델 혼자 힘으로 3권이 나왔다. 그는 책수집에 정열적이어서 백과사전을 편집하는데도 자기 집의 것으로 충분했다고. 그러나 한 해 전에 있었던 역사적인 뉴스인 콜럼버스의 항해에 대한 것을 빠뜨리는 실수를 범했다.

## 왜 「1984」인가?

조지 오웰의 「1984」가 1983년이나 1985년이 안 된 것은 그 작품을 쓴 해가 1948년으로 (출판은 그 이듬해) 뒤의 숫자 둘을 바꾸어 놓은 것이다.

— 김호근 프리 에디터

으니까요」

그는 근대의 핵심인 자본주의의 특징으로, 훼손된 가치와 교환가치를 지적한다. 따라서 그에 의하면 萬海·陸史·東柱·素月처럼 민족·독립·사랑 등 자본주의하에서만 특수하게 문제되는 것이 아닌 주제를 노래한 시인들은 精神史의 영역일 수는 있어도 엄밀하게 말하여 근대시인은 아니라고 말한다. 국문학과 학위논문이 廉想涉·蔡萬植·李箱 등에 집중되는 까닭도 그들이 교환가치와 같은 자본주의하의 근대적 가치와 관련있는 주제를 다뤘기 때문이라는 것.

金九수는 앞으로 「근대」를 해명하는데 연구의 초점을 맞춘 다음, 이러한 성과를 토대로 「한국문학사」(김현교수와 共著, 73년 民音社刊)를 수정·보완하는 새로운 「한국문학사」를 집필하겠다고 포부를 밝힌다. 그의 「近代論」이 다분히 서구적이어서 쟁점으로 부각될 수 있긴 하지만, 이제 곧 자료수집차 일본으로 떠나게 될 그에게서 근대문학의 새로운 면모를 밝혀려는 의지를 느낄 수 있다.

## 金九植교수의 저서와 역사

## • 연구서

「한국근대문학비평사연구」(73년 한일문고, 76년 일지사)

「근대한국문학연구」(73년 일지사)

「한국문학사」(공저, 73년 민음사)

「한국문학논고」(73년 법문사)

「한국근대작가 논고」(74년 일지사)

「한국문학의 논리」(74년 일지사)

「한일문학의 관련양상」(74년 일지사)

「문학사와 비평」(75년 일지사)

「한국현대詩論비판」(75년 일지사)

「한국근대문학의 이해」(76년 일지사)

「한국현대문학사」(76년 일지사)

「한국근대문학사상비판」(78년 일지사)

「한국근대문학양식논고」(80년 아세아문화사)

「한국현대소설비판」(81년 일지사)

「한국근대문학사상연구1—陶南과 崔載瑞」

(84년 일지사)

「한국근대문학사상사」(84년 한길사)

「한국근대문학과 문학교육」(84년 을유문화사)

「李光洙와 그의 시대(1·2·3)」(86년 한길사)

「安壽吉연구」(86년 정음사)

「한국근대소설사연구」(86년 을유문화사)

「廉想涉연구」(87년 서울대 출판부)

## • 평론집

「우리문학의 넓이와 깊이」(79년 서래헌)

「황홀경의 사상」(84년 흥성사)

「작은 생각의 집짓기들: 비평가의 표정」

(85년 나남)

「우리소설과의 만남」(86년 민음사)

## • 편저

「성북동비둘기」(해설, 75년 민음사)

「廉想涉」(77년 문학과 지성사)

「이산·분단문학 대표소설선」(83년 동아일보사)

「崔南善; 金億 외」(84년 지식산업사)

「꺼레이; 白信愛 소설집」(87년 조선일보사)

## • 사전

「문학비평용어사전」(76년 일지사)

「한국현대명작사전」(79년 일지사)

## • 譯書

Ruth Benedict 「국화와 칼」(공역, 74년 을유문화사)

René Girard 「소설의 이론」(77년 삼영사)

레온 에델 「작가론의 방법: 문학전기란 무엇인가」(83년 삼영사)

— 엄창호 기자

서울 종로구 수송동 46-1

乙酉文化社

전화 733-8151~3, 734-3515

## 韓國通史(改訂版)

韓 沽 勛 著

學界의 오랜 요망에 부응하여 그간 사학계와 인접 학문분야의 누적된 연구 성과를 수용, 새로운 체제 아래 편에 걸쳐 대폭적인 증보·개정을 기한 한국사 개설서. (A5판/六八八면/七、〇〇〇원)

## 韓國現代史의諸問題 I・II

韓國史學會編 (朴永錫·鄭龍植·李炫熙·金昌順·共同執筆)

국내의 전문학자들이 자기 다양한 연구방법과 시각에서 한국 현대사의 제문제들을 제기하고 우리나라 현대사의 정의에 초점을 맞추어 서술한 최신 논문집. (A5판/一三、五〇〇원/二、五〇〇원)

## 韓國現代人物論 I・II

韓國史學會編

조국의 독립운동과 건국 전야의 혼미한 정국을 주도하며 활약하였던 7인의 민족지도자의 人間像과 時代相을 재조명·해방 전후사의 재인식을 제시한 論文集. (A5판/一三、五〇〇원/二、五〇〇원)

## 中國哲學史

狩野直喜著/吳二煥譯

日本「支那學」の開祖라 불리는 저자가 清朝實證學을 연구방법의 근저에 두고 中國學研究의 혁신을 꾀한名著 經學을 중심으로 중국 사상의 전반적 흐름을 개관하고 있다. (A5판/六八〇면/八、〇〇〇원)

## 中國의科學과文明 I・II

J·니담著/林禎垌·李鐵柱·李錫浩共譯

科學技術史의 연구는 그 나라 문화 전체의 연구라 할 수 있다. 中國文明을 西歐文明과 동등한 위치로 끌어올려놓고 中國文化가 유럽에 끼친 영향을 밝힌 20世紀 최대의著作. (A5판/一五、五〇〇원/二六、〇〇〇원)

## 自由主義의運命

J·번햄著/李澤微譯

현대의 본질을 예리한 안목으로 파헤친 現代의古典. 自由主義 症候群을 냉혹하게 해부하고 있는 이 책은 서구 세계의 현실과 미래에 많은 시사점을 던져준다. (A5판/二八四면/三、〇〇〇원)

## 女性學의理論

G·볼스/R·D·글레인共著/鄭金子譯

의假定과 목표, 여성운동과의 관계 등 여성학이 안고 있는 문제를 다각적으로 밝히고 있는 最適의 여성학 입문서. (A5판/二五、五〇〇원/三、五〇〇원)

## 第二의性(上·下)

S·보부아르著/趙洪植譯

저자의 대표적 저작으로서, 면밀한 분석력과 풍부한 감수성으로 女性의諸問題를 고찰, 여성의 해방을 부르짖은 革命의女性論. 전 여성 필독의 古典的名著, 改譯新版. (A5판/上五、五〇〇원/下四、〇〇〇원)

## 데카메론(上·下)

G·보카치오著/南龍祐譯

근대적인 리얼리즘의 散文精神으로 씌어진 최초의 작품으로, 中世와 결별하고 근대의 人間的自覺이 첫발을 내디딘 기념비적傑作. (A5판/上四、五〇〇원/下三、五〇〇원)